

이게노야마 고분

이게노야마 고분은 5세기 전반에 축조된 고분입니다. 고분은 천황이나 귀족, 씨족장, 또는 그 외 유력자의 묘로서 조성되었습니다. 이게노야마 고분은 교토부 오토쿠니 지역 최대의 전방후원분(위에서 보아 앞쪽의 반은 사각형이고 뒤쪽 반은 원형을 이룬 무덤)이며 지역 유력자의 묘라고 보고 있습니다. 1980년에 고분 안에서 수백 점의 철제 무기가 발견되었고, 이듬해인 1981년에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003년부터 발굴 조사가 시작되어 고분의 복원·유지 계획이 책정·실시되었습니다. 복원 준비가 완료된 2014년, 유적의 보존 및 봉분과 그 역사에 관한 정보 제공, 그리고 커뮤니티의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사적(史跡) 공원으로서 개방되었습니다.

특징

전방은 사다리꼴 모양의 사각형, 후방은 원형으로 이루어진 전방후원분이라는 형태의 고분입니다. 크기는, 세 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봉분 전체의 길이가 약 128m, 후방 원형부는 직경이 78.6m, 높이가 10.4m, 전방 부분은 폭이 78.6m, 높이가 7.6m입니다. 옛날에는 해자로 둘러싸이고 봉분이 돌로 뒤덮여 있었으며, 토용이라고 하는 다양한 형상의 흙 인형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고분 서쪽에 있는 사각형 구역은 장례식이나 의식에 사용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후방 원형 부분에는 석실이 존재한다고 생각되지만, 꼭대기에는 묘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면적으로 발굴하지는 않았습니다.

부장품 및 그 외 출토품

1980년, 꼭대기에 있는 묘지의 확장 준비 중에 약 700개의 철제 무기가 들어찬 긴 나무 상자가 고분의 전방 부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나무 상자 안에는, 검과 창, 다양한 화살촉, 날붙이 등이 수납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교토부 내에서는 유일한 발견 사례이며 전국적으로도 극히 드문 예입니다. 또한 가까이에서는 도끼와 낫, 팽이 등 철제 농기구가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고분에서는 토용도 출토되었는데, 그중 대부분이 원통형으로 고분의 경계선을 따라 울타리처럼 늘어서 있었습니다. 또한 매장된 사람의 편의를 고려한 물품(집, 배, 양산)과 방어를 위한 무기(방패, 갑옷, 화살통), 그리고 동물(물새와 닭) 모양의 토용도 있었습니다. 철제 무기 등의 출토품은 1999년에 교토부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이게노야마 고분 공원

원래 형태로 추정되는 모습으로 복원된 이게노야마 고분 주위에는 녹음이 풍요롭고 드넓은 공원이 정비되어 있습니다. 전방 부분의 토대 가까이에는 봉분의 특징을 해설한 모형과 오토쿠니 지역에 있는 모든 고분이 실려 있는 지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분의 각 층과 서쪽의 제사를 위한 장소에는 많은 토용의 복제품이 늘어서

있어 5세기 전반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봉분의 정면과 측면에는 계단이 설치되어 있어, 고분 꼭대기에서 공원과 주변 거리의 드넓은 경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한 출토된 철제 무기의 실물 크기 사진이 전시되어 있어 이 장소에서 중요한 발견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